

# 6~7이닝 괴력 투구 후라도 5년 만의 200이닝 투수 '찜'

프로야구 선발투수가 한 시즌 200이닝을 던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한 시즌 144경기를 치르는 KBO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돌면 약 30경기를 등판한다. 등판 때마다 평균 6~7이닝을 꾸준히 던져야 200이닝을 달성할 수 있다.

시즌 내내 부상이나 슬럼프 없이 로테이션을 지켜야 한다.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모습이 없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200이닝 투수는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0이닝을 소화하는 투수가 나오면, 그 팀은 최소한 5일 간격으로 불펜을 아낄 수 있다.

불펜 소모가 적으면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서 큰 효과를 본다. 200이닝 투수의 등판 다음 날 불펜을 쏘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마운드 운용에도 이점을 누린다.

200이닝 투수는 분업화가 이뤄진 현대 프로야구에서 희귀하다.

KBO리그에선 2020년 kt wiz에서 뛰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당시 207%이닝) 이후 단 한 명도 한 시즌 200이닝 고지를 밟지 못했다.

올 시즌엔 5년 만에 200이닝 투수가 나



지난달 30일 기준 171이닝 넘겨 5회 더 등판할듯... 신기록 확실히 최다 투구서 2위 폰세 크게 앞서 QS·QS+·완투 모두 선두 점령 삼성 "타자친화 홈서 이룬 현신"

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닝 마스터 아리엘 후라도 (29)가 200이닝에 도전한다. 후라도는 지난달 30일 기준 26경기에서 171¼이닝

위 코디 폰세(157¼이닝·한화 이글스)를 크게 앞서고,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 20차례, 퀄리티스타트 플러스(QS+·선발 7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 13차례, 완투(3차례) 부문 모두 1위다.

후라도의 활약상은 KBO리그의 대표적인 '타자친화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면서 일궈낸 더욱 의미 있다. 후라도는 올 시즌 등판 경기의 절반 이상인 15경기를 대구에서 소화하면서 94이닝을 책임졌다.

삼성 내부에선 후라도의 현신을 높게 평가한다. 박진만



을 던져 13승 8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 중이다.

삼성은 정규시즌 20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후라도는 5년 정도 추가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경기 당 평균 6.6이닝을 던지는 후라도는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200이닝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후라도는 이닝과 관련한 기록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최다 투구 이닝에선 2

삼성 감

독은 7월26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방문

경기를 마친 뒤 완봉승을 거둔 후라도를 향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박 감독은 "고마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 초, 삼성 선발투수 후라도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팀은 졌지만... 황희찬 개막 3경기 만에 골맛

‘황소’ 황희찬(29·울버햄프턴·사진)



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3경기째 만에 처음 선발로 출전해 마수걸이 득점포를 터트리는 기쁨을 맛봤지만, 팀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울버햄프턴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끝난 에버턴과 2025-2026 EPL 3라운드 홈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첫 선발 슈팅 기회, 시즌 1호골 울버햄프턴 개막 3연패 수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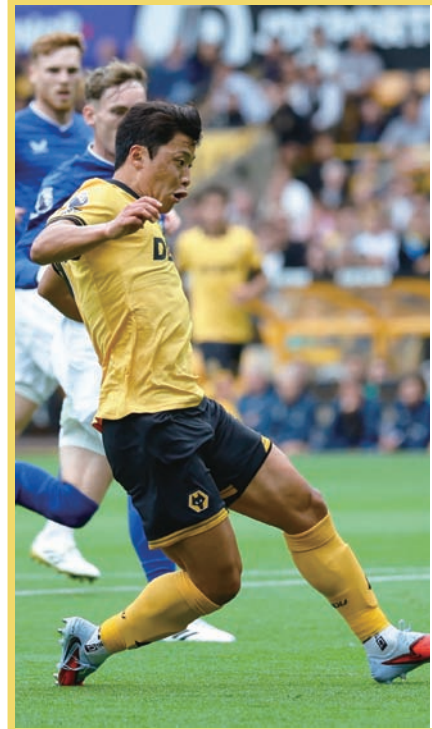
이날 패배로 울버햄프턴은 개막 3연패(3패·승점 0·골 득실 -6)에 그치며 1경기를 덜 치른 웨스트햄(2패·승점 0·골득실 -7)에 골 득실차로 겨우 앞서 20개 팀 가운데 19위에 머물렀다.

울버햄프턴은 1-2라운드에서 교체로 내세웠던 황희찬을 최전방 스트라이커

로 내세운 3-4-3 전술로 에버턴을 상대했다.

황희찬은 지난달 27일 리그컵(카라바오 컵)에선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출전해 바 있지만, 정규리그에서 선발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희찬은 전반 21분 동점골의 주인공이 됐다. 오른쪽 측면을 뚫은 마셜 무네치가 크로스를 내주자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재빠르게 쇄도하던 황희찬이 왼발 슈팅으로 에버턴의 골 문물을 흔들었다.



## “허리 부상 김하성 훈련 재개”… 이르면 오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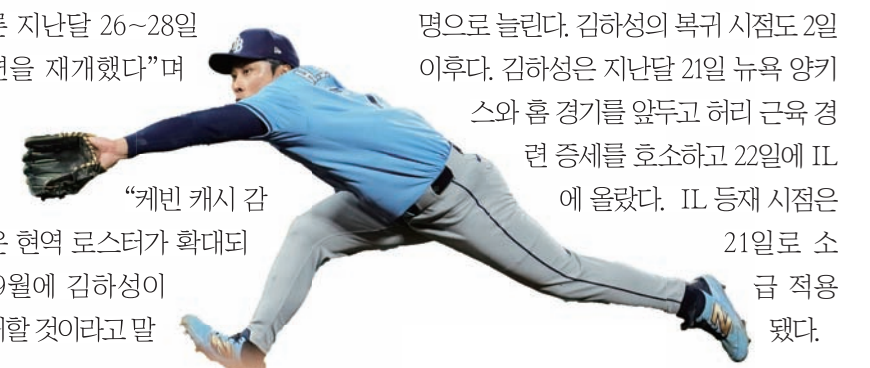
허리 통증 탓에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이르면 2일(한국시간) 박리그로 돌아올 전망이다.

MLB닷컴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구단 부상 선수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김하성은 팀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경기를 치른 지난달 26~28일

훈련을 재개했다”며 “케빈 캐시 감독은 현역 로스터가 확대되는 9월에 김하성이 복귀할 것이라고 말

했다”고 전했다. 캐시 감독은 지난달 30일 탬파베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김하성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 구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2일(한국시간)에 현역 로스터를 26명에서 28명으로 늘린다. 김하성의 복귀 시점도 2일 이후다. 김하성은 지난달 21일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허리 근육 경련 증세를 호소하고 22일에 IL에 올랐다. IL 등재 시점은 21일로 소급 적용됐다.



# 인한서 플러스

관절영양제의 혁명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